



AI가 바꾸는 미래의 생명과 이동

인공지능 6팀 고윤정, 김동혁, 데나, 이지형, 조승원



완전 자동화된 수술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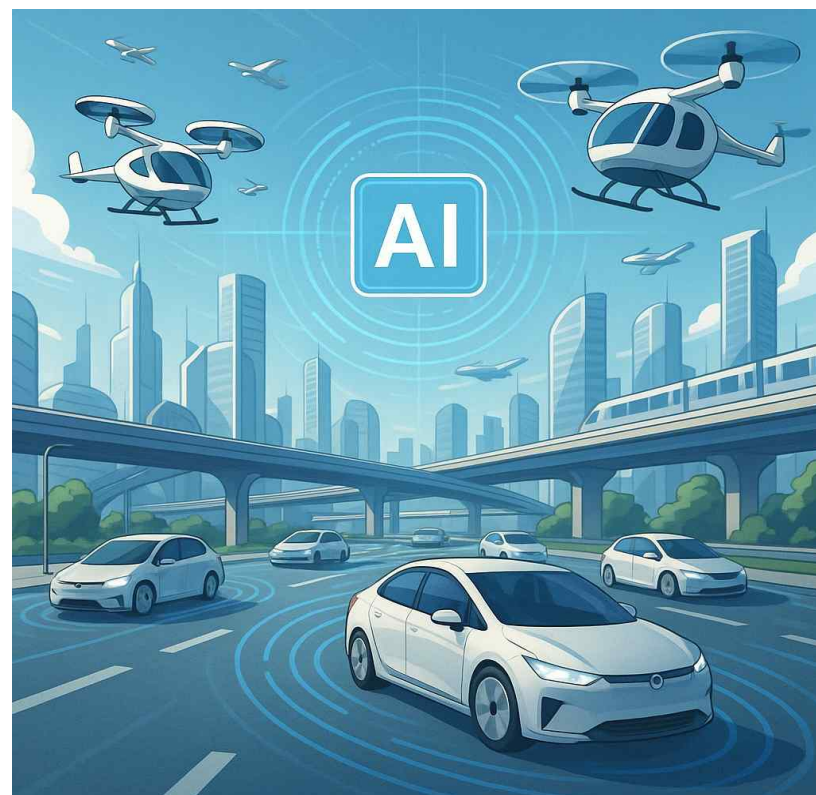
무인 수술실이 표준이 되어 AI와 로봇이 나노 단위 정밀도로 수술을 집도합니다. AI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판단을 내리며, 수술 성공률은 99.999%에 달합니다.

AI 주치의와 개인 건강 트윈

2050년대에는 개인의 신체와 감정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디지털 트윈이 존재합니다. AI 주치의는 이를 분석해 병이 생기기 전 예방적 치료를 수행하며, 의료는 완전히 예측 중심으로 바뀝니다.

정신 건강과 감정 AI - 마음을 읽는 의사

AI는 음성·눈동자·뇌파를 분석해 인간의 감정을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개인 맞춤형 감정 회복 루틴을 설계해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

2050년의 도시는 운전이 사라지고, 모든 차량이 AI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차량들은 서로 협력해 완벽한 안전과 효율을 실현하며, 운전면허는 과거의 유물이 됩니다.

개인용 비행체(PAV)의 일상화

2050년대 도심 하늘에는 자율비행 택시(PAV)가 새로운 교통수단이 됩니다. AI가 수천 개의 항로를 0.0001초 단위로 제어하며, 하늘은 이제 사람과 응급 이송기가 오가는 새로운 도로가 됩니다.

AI가 운영하는 교통 두뇌

AI는 도시의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MaaS)로 관리합니다. 자율주행차부터 드론 택시까지 자동으로 연동되어,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이동 루트를 제공합니다.



완전 자동화된 수술실, AI 주치의가 진료하는 모습, 감정 AI가 정신 건강 관리해주는 미래 모습을 그려줘.

완전 자율주행 하는 도시, 하늘을 날아다니는 개인용 비행체, AI가 도시 전체의 교통을 운영하는 모습을 그려줘.

